

낙농가의 소리 ①

낙농업은  
존속할 것인가.

장 일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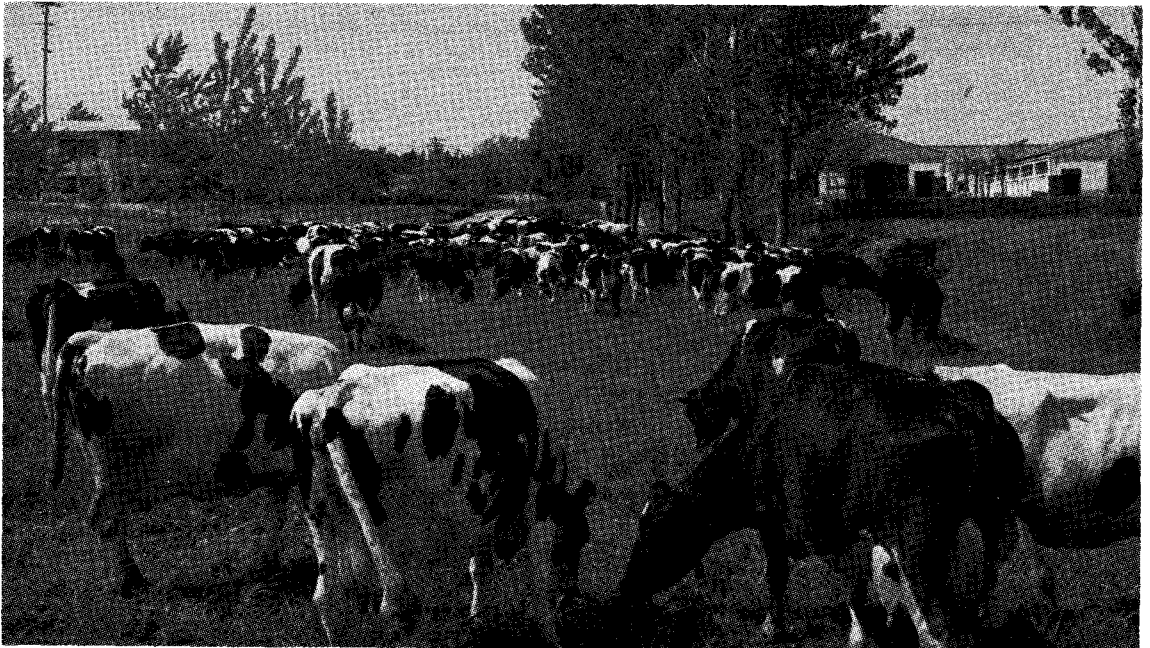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산73 장양목장

경기도 동두천에서 조그마한 목장을 하고 있는 장일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님과 우리나라의 낙농을 다함께 걱정하며 이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낙농현황은

97년도의 수입개방 시한과, 우유소비 부진에 따른 분유재고의 누적으로 집유량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집유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피땀 흘려 생산한 원유를 길바닥에 쏟아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납유한 원유도 대금을 어음이나 유제품으로 일정 비율을 지급받고 있어 목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인지 폐업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숙고하여야 할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3~4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낙농위기 현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때마다 불황의 피해는 어김없이 불쌍한 낙농인에게 미치고 있으니 정녕 안심하고 정부와 정책 당국자 및 낙농지도자들을 믿고 일만 열심히



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때는 오지 아니한단 말입니까!

이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관성 있는 낙농의 장기대책입니다.

농업은 天下之大本이라 하였습니다.

국가의 뿌리가 흔들리면 인젠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에 불황이 닥칠 때마다 땀질을 하는 식의 미봉책에 그칠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낙농업에 안심하고 자랑스럽게 종사하며 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정책이 정착하기 위하여는 학계, 정계, 생산자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도울것은 도와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현실과 개방 압력에 대응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가를 다시한번 다듬어서 정말 낙농인을 위한 진흥법이 되도록 개정하여야 하겠으며 특정 단체의 기반 확충이나 이해에 편중하여 우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입니다.

둘째로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입니다.

모름지기 국가는 그 존립을 좌우하는 기간산업은 절대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업분야 중에 주곡과 우유는 그 어느나라나 선진 제국도 자기나라의 기반을 무너뜨릴 정도로 개방하는 나라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정책을 쓰는 것

**후발 농업국인 우리나라는 GATT에 가입시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될 때에 대비한 자국 농민 보호 대책을 강구치 못하고 벌거숭이 상대로 가입하였다 함은 울분을 참을 길이 없으며 최첨단 공업국도 유보장치가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아무리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하여도 그 어떤 법도 사회규범에 위배되고 공평의 원리에 의거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고 특정국가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해 조항은 무효**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발 농업국인 우리나라는 GATT에 가입시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될 때에 대비한 자국 농민 보호대책을 강구치 못하고 벌거숭이 상대로 가입하였다 함은 울분을 참을길이 없습니다.

최첨단 공업국도 유보장치가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아무리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하여도 그 어떤 법도 사회 규범에 위배되고 공평의 원리에 의거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고 특정 국가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해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97년까지 제아무리 수입개방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우유제품의 개방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며 일부 개방이 된다 하여도 철저한 자국민 보호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유보조항을 삽입하여 가입한 선진국들과 동등한 권리가 주장되고, 앞서있는 선진국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기에 상응하는 개방 선례를 넘어서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 세째로 현 낙농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입니다.

가장 급한 것은 그 2만여톤에 이른 분유체화의 해소책입니다.

지금 생산자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백성의 어려움은 국가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체화 분유중 5,000t 이상을 국외처분하여 국내유통으로 계속 할인 판매되어 생산원가에 절반에도 못미치게 거래되어 유업체의 자금 압박으로 집유거부, 유대지급지연, 현물 지급 사태를 막아주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국민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못마시고 있음을 직시하여 5,000t 이상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마실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 인구를 현재의 470만명에서 600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급식 지원비를 증액하여야 할 것이며 도서·벽지와 양로원, 고아원 등의 우유보내기 지원 확대로 소비층을 늘리는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넷째로는 유업체의 다양한 유제품개발 및 소비확충을 위한 공동 홍보의 제도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유제품의 수입중단입니다.

작년 일년간에도 무수한 유제품이 수입되었으며 그중 대표적으로는 초코 파우더만도 4,000t 정도 수입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분유 함량 90%로서 분유와 똑같은 것으로 3,600t의 국내 분유재고를 누증시켰으며 미군 부대에서 유출되는 치즈만도 100t을 능가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니 이것을 막는다면 정부의 5,000t 수매는 필요없는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동두천에 살기에 미군부대에서 불법유통하



는 치즈를 먹어 보았더니 새우젓 썩은 맛이 나더군요. 장기운반 저장용이니 맛도 이상하고 짜고 방부제가 다량 함유될 공산이 큼니다.

그러면 우리 낙농인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정부, 유업체, 학계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 낙농을 걱정하고 해결한다면 우리들도 기꺼히 낙농정상화 대책에 순응하여 소비, 홍보 대열에 가담하여야 함은 물론 저능력우 도태와, 송아지 어미젖먹이기 등 수급조절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낙농인의 협동체인 낙농협동조합을 지역마다 설립하여 우리가 생산한 우유는 우리가 집유하고 가공하며 판매하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원유가 부족할때는 큰소리를 치다가 원유가 남으면 품짝 못하고 당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하신 낙농지도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단편으로 현실만 타개하는데 끝날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에 우리나라 낙농이 자랑스럽게 정직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읍시다.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우리들의 힘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극복하고 수호하여 발전시킨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결 또 단결 합시다.